



numbers  
vol. 275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 분석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 '전통적/권위적' 압도적!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024년 국어(어휘) 사용 실태
- ② 직장 내 사적 질문의 걱정선
- ③ 동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의 1인당 GDP 추이

2025. 2. 18.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전통적/권위적’ 압도적!

한국 사회가 점차 세분화·파편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 공동체의 결속과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기독교인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의 인식과 행동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최근 우리 연구소가 한국교회탐구센터, 21세기교회연구소와 공동으로 ‘기독교인 신앙 유형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독교인 유형 분류를 위해 신앙 유형 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격유형검사(MBTI)를 벤치마킹하여 진행한 방법으로 성격이 다른 4쌍의 변수를 평균 점수에 따라 이분법 차원으로 분류하여 총 16가지 신앙 유형으로 도출했다.

이번 ‘한국의 기독교인 유형 분류 조사’ 결과를 통해 교회 내 다양한 신앙 유형이 존재함을 인식하여 성도들 서로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목회자들은 각 유형에 맞는 사역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기독교인 유형 분류 조사

###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4년 9월 20일 ~ 9월 27일 (8일간)
조사 주체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신앙 유형 도출 과정 및 유형별 특징

-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을 유형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성격이 다른 신앙 변수, 전통적-현대적, 초월적-현실적, 공동체적-개인적, 권위적-탈권위적을 각각 분류할 수 있는 4~5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MBTI 성격유형검사에서 E(외향형)-(내향형)으로 나누듯이 4쌍(8개)의 신앙 차원(전통vs현대, 초월vs현실, 공동체vs개인, 권위vs탈권위)을 만들고, 이를 조합하여 궁극적으로 총 16개의 신앙 유형을 도출했다.

[그림] 신앙 유형 도출 전개도\*

	전통-현대적 신앙	초월-현실적 신앙	공동체적-개인적 신앙	권위적-탈권위적 신앙
관련 질문 문항 구성	① 성경의 무오성 ② 초자연적 기적 ③ 과학과 신앙의 충돌 ④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 되심 ⑤ 전통과 현대 문화	① 신앙 성장: 영성 훈련과 실생활 훈련 ② 하나님 나라: 현재와 사후 ③ 신앙의 목적: 구원/영생과 예수님 닮기 ④ 신앙적 실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회적 책임 ⑤ 세상에서의 행동: 전도와 사회봉사	① 교회의 신앙 활동과 개인적 신앙 생활 ② 공동체의 유익과 자신의 신앙 세우기 ③ 소그룹 참여와 개인적 경건훈련 ④ 교회의 일정과 개인 일정	① 교회의 방침과 나의 판단 ② 목회자의 의견과 나의 판단 ③ 직분제도의 필요성 여부 ④ 교회 연장자의 의견과 나의 의견
	전통 vs 현대	초월 vs 현실	공동체 vs 개인	권위 vs 탈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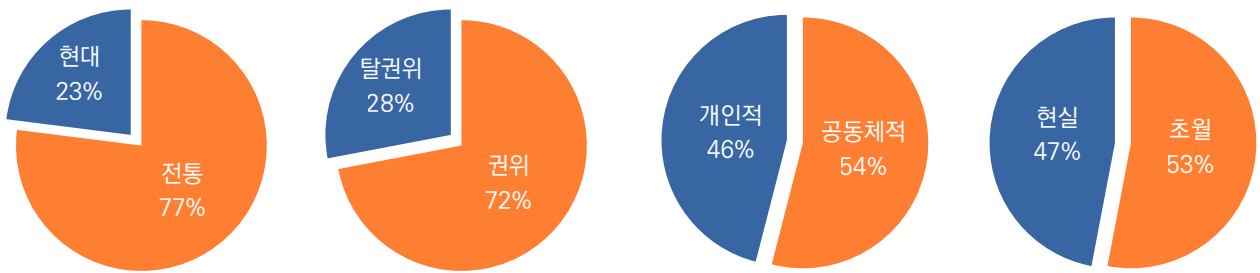
\*각 설문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 유형분류를 위한 세부 문항은 보고서 내 설문지 문1~10, 문15~22 참조할 것. (보고서는 후원자들에게 추후 발송 예정임)  
 (문1~5: 전통적-현대적 신앙, 문6~10: 초월-현실적 신앙, 문15~18: 공동체적-개인적 신앙, 문19~22: 권위적-탈권위적 신앙)

# 01

## [신앙 유형 구분과 특성]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 '전통적/권위적' 압도적!

- 4쌍의 신앙 변수들을 살펴보면, 전통과 현대적 신앙의 경우 '전통적 신앙'이 77%로 압도적으로 높고, 권위와 탈권위적 신앙에서도 '권위적 신앙'이 72%로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초월 신앙'과 '현실적 신앙'은 각각 53%,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공동체적 신앙'(54%)은 '개인적 신앙'(46%)보다 8%p가량 높았다.
-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신앙 유형 비율 (기독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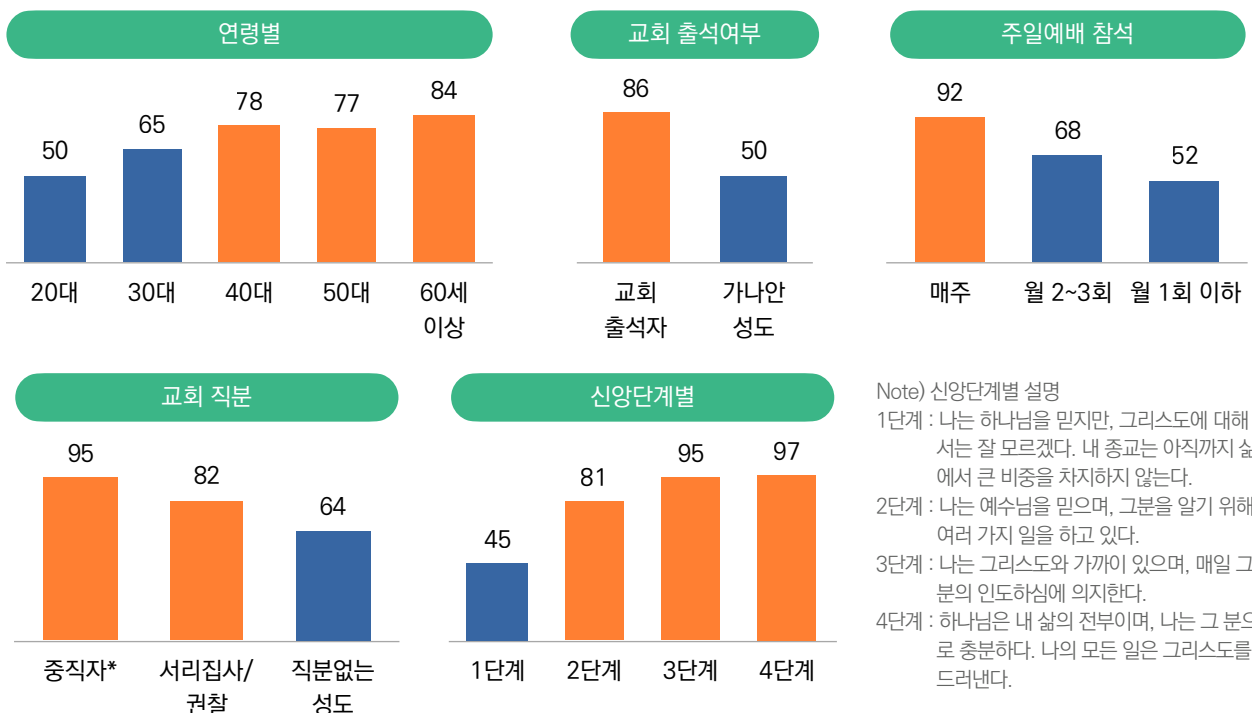


### 전통적 신앙 유형 특징,

#### ① 연령대 ↑ ② 매주 주일예배 참석 ③ 중직자 ④ 신앙수준 ↑!

- 앞서 한국 기독교인의 77%가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현대적 유형과 비교했을 때, 전통적 신앙 유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 출석자', '주일예배 매주 참석자', '중직자', '신앙수준 상층'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 '권위적', '초월' 유형 역시 '전통적' 신앙 유형(고연령층, 교회출석자, 중직자 등)과 대체로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그림] 전통적 신앙 유형의 세부 특성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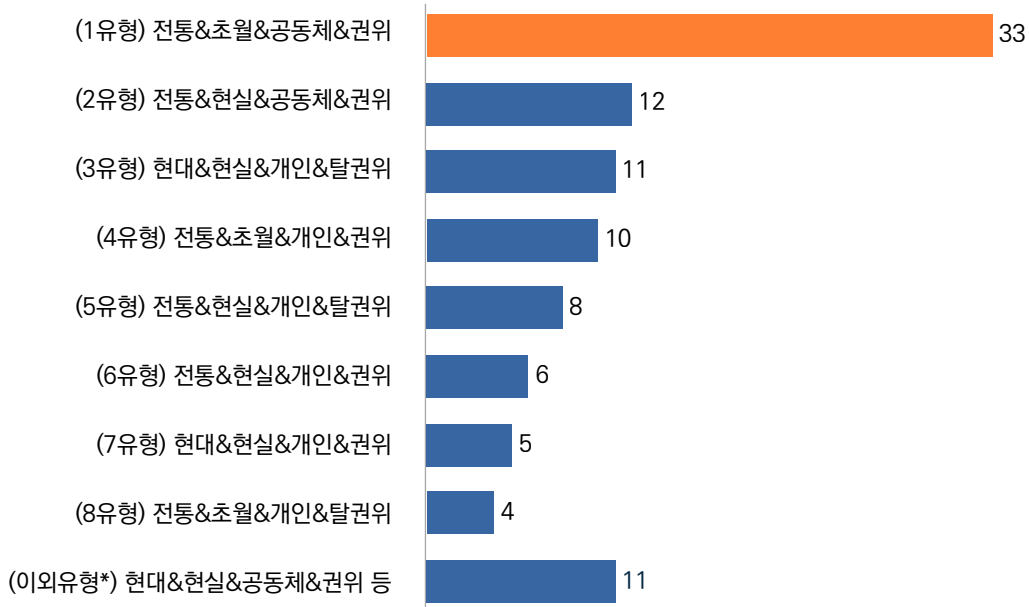
Note) 신앙단계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안수집사/권사, 장로 등 포함

##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신앙 유형, ‘전통&초월&공동체적&권위’!

- 4쌍의 변수를 조합한 16가지 세부 유형을 살펴본다. 먼저 한국 기독교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유형은 ‘전통&초월&공동체적&권위’로 33%, 즉 3명 중 1명꼴이었다. 두 번째(2유형)는 초월-현실만 다른 ‘전통&현실&공동체적&권위’(12%), 세 번째 유형은 1유형과 모두 정반대인 ‘현대&현실&개인&탈권위’(11%)였다.
- 1유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큰 차이 없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신앙 지형이 교회 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세부 유형 비율 (기독교인, %)



\*나머지 8가지 유형은 사례 수가 적어 8개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외유형으로 분류함

Note) 이하 자료부터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지 않고(eg. 전통&초월&공동체적&권위 등), 순위에 따라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등으로 표기함

# 1유형: 전반적 신앙지표 높은 보수/고연령층 ↔ 3유형: 신앙지표 낮은 가나안/저연령층 성도!

- 세부 유형 중 1유형과 3유형 즉,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전통&초월&공동체&권위'와 1유형과 정반대이면서 3번째로 높았던 '현대&현실&개인&탈권위'를 비교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 1유형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 출석자, 주일예배 매주 참석자, 중직자, 높은 신앙단계, 기독교 가정,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에서 더 두드러졌다. 반면 3유형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나안 성도', '비기독교 가정', '낮은 신앙 단계'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유형과 3유형 비교 (기독교인, %)

구분		1유형 (전통&초월&공동체&권위)	3유형 (현대&현실&개인&탈권위)
전체		33	11
연령	20대	16	<b>22</b>
	30대	23	18
	40대	32	13
	50대	33	8
	60세 이상	<b>40</b>	7
교회 출석여부	교회 출석자	<b>42</b>	6
	가나안성도	8	<b>24</b>
주일예배 참석	매주	<b>47</b>	4
	월 2~3회	22	12
	월 1회 이하	13	<b>24</b>
교회 직분	중직자	<b>52</b>	2
	서리집사/권찰	39	8
	직분없는 성도	20	<b>17</b>
신앙단계	1단계	10	<b>25</b>
	2단계	32	6
	3단계	48	4
	4단계	<b>52</b>	2
가족 종교 여부	기독교 가정	<b>40</b>	7
	혼합 가정	25	13
	비기독교 가정	24	<b>23</b>
이념성향	보수	<b>43</b>	6
	중도	31	15
	진보	2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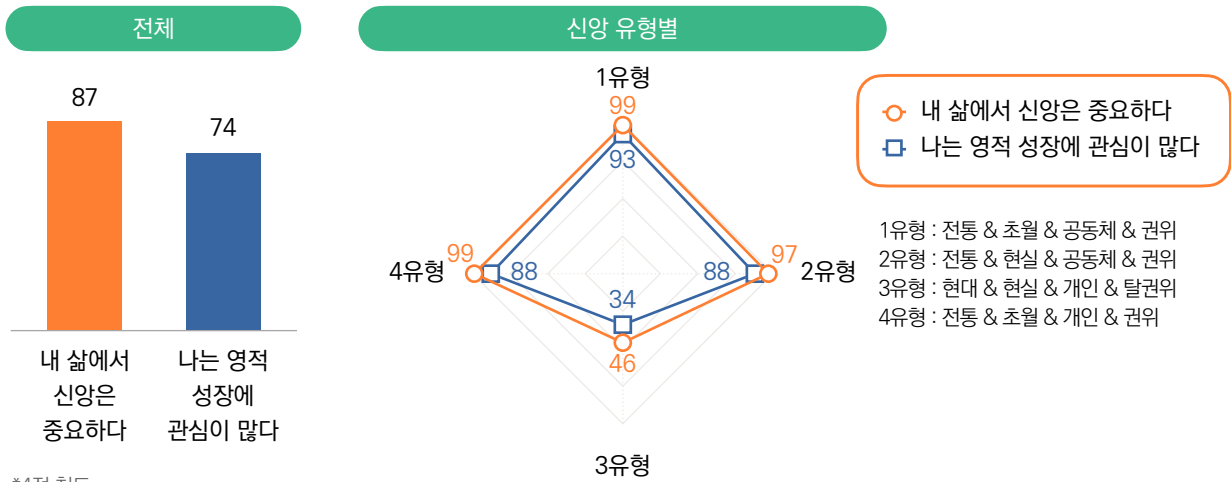
# 02

## [신앙 의식]

### 현대적/탈권위적 신앙 유형, 영적 성장 관심도 떨어져!

-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도’ 각각의 동의율을 살펴본다. 먼저 ‘내 삶에서 신앙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7%로 3유형(46%)을 제외한 1,2,4유형은 거의 100%에 가까운 긍정률을 보였다.
- ‘나는 영적 성장에 관심이 많다’에도 3유형의 동의율은 30%대에 불과한 데 반해 1,2,4유형은 앞선 신앙의 중요성 인식과 비슷한 패턴(80~90%대의 높은 동의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현대적, 탈권위적 유형층에서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신앙의 중요성 및 영적 성장 관심도 (기독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4점 척도

### 현대적/탈권위적 신앙 유형, 사회 참여 강하고 복음 전도 약해!

- ‘나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복음 전도에 적극 참여한다’와 ‘나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다’에 대한 각각의 동의율을 상위 4개 유형별로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 참여(42%)에 대한 동의율이 사회적 참여(56%)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전도 참여’ 동의율은 1,2,4유형에서는 절반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으나 3유형은 16%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사회적 정의 참여’에는 타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3유형에서도 절반 가까이(46%) 긍정률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현대적/탈권위적 신앙 유형자들에게서 사회 참여는 강한 반면, 복음 전도 참여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전도 참여’와 ‘사회 정의 참여’ 동의율 비교 (기독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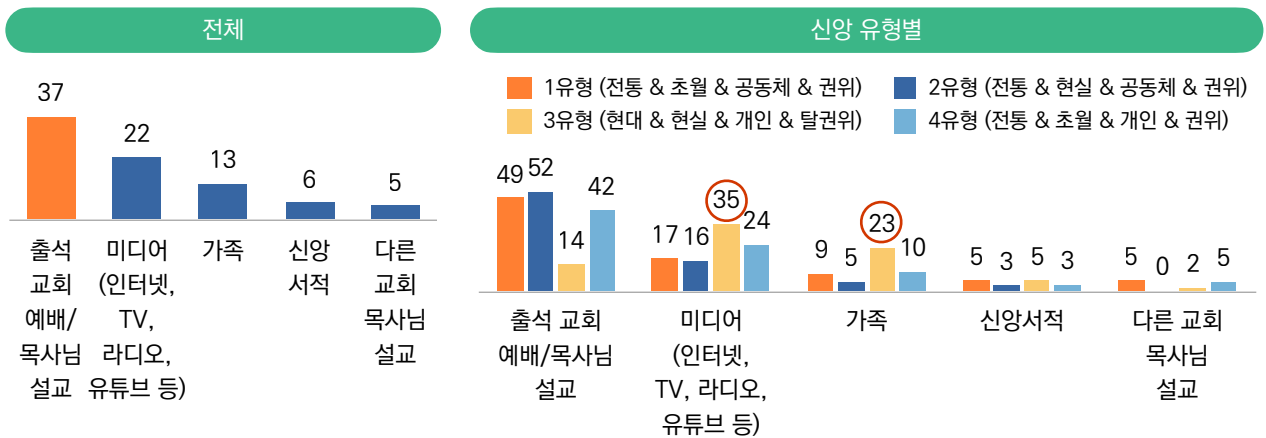
# 03

## [신앙생활]

### 신앙성장도움, 3유형은 '목사님 설교'보다 '미디어 가족' 영향더 커

- 자신의 신앙 성장에 가장 크게 도움을 받는 것에 관해 물은 결과,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가 10명 중 4명 가까이(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디어'(22%), '가족'(13%) 등의 순이었다.
- 전체 신앙 유형 중 11%를 차지하는 현대&현실&개인&탈권위(3유형)의 경우 신앙 성장의 도움 요인으로 '미디어'(35%)와 '가족'(23%)을 높게 꼽아 출석교회의 예배/설교(14%) 영향은 미미했고, '미디어', '가족'에 대한 영향 및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 (기독교인,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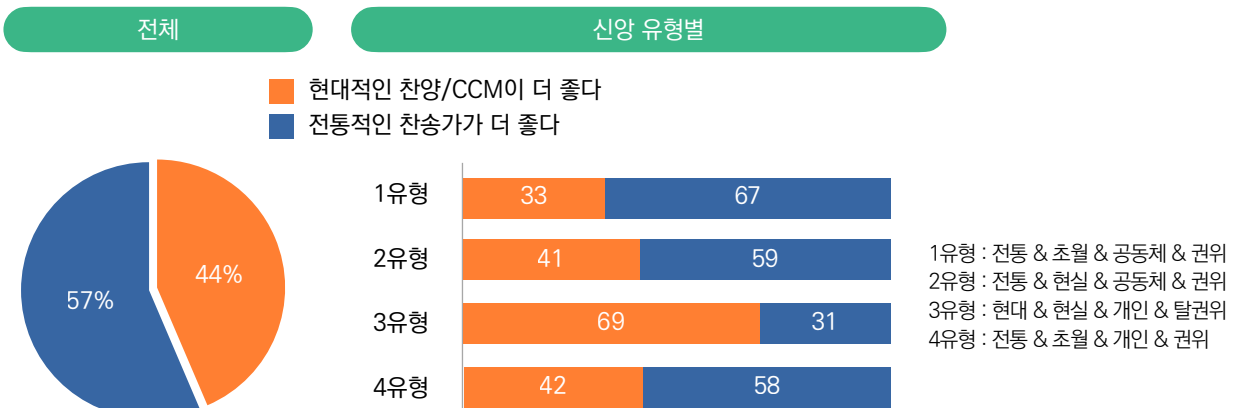
# 04

## [기독교 이슈 인식]

### 선호하는 찬양 유형, 3유형, 현대적 찬양/CCM 선호도 높아

- 선호하는 찬양 유형을 물은 결과, 전통적인 찬송가를 부르는 것(57%)을 현대적인 찬양/CCM(43%)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앙 유형별로 보면 전통과 현대 신앙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전통 유형이 포함된 1,2,4유형의 기독교인의 경우 10명 중 6명가량이 전통적인 찬양을 더 좋아했으나, 현대 신앙 유형(3유형)은 70% 정도가 현대적인 찬양을 선호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30 젊은 세대는 현대적인 찬양(20대 64%, 30대 73%)을,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전통적 찬양(60세 이상 74%)을 선호해 연령에 따른 차이도 확인했다.

[그림] 선호하는 찬양\*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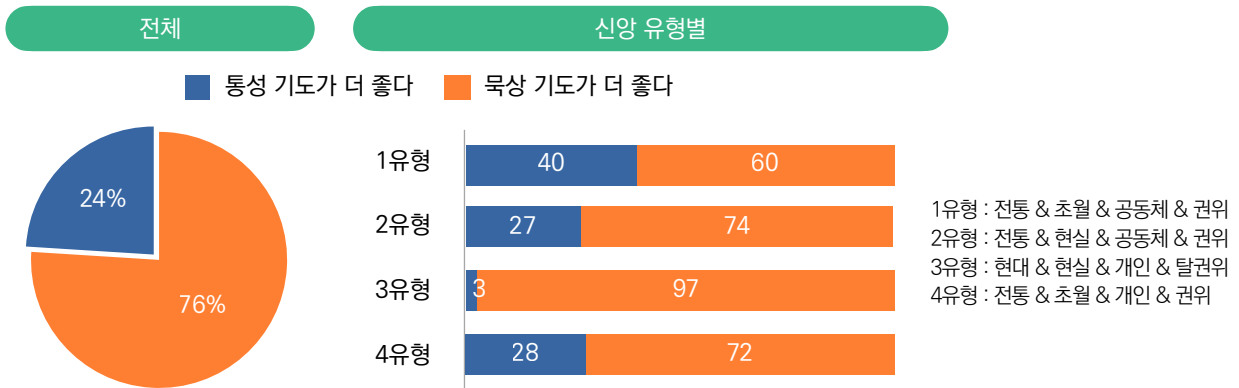


\*4점 척도

## 전 신앙 유형에서 ‘통성 기도’보다 ‘묵상 기도’ 선호도 높다!

-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 중 어느 기도를 더 선호하는 지 물었다. 묵상 기도를 선호하는 비율(76%)이 통성 기도(24%)보다 3배 이상 높게 응답됐다.
- 1유형이 타 유형 대비 통성 기도 선호 비율이 10명 중 4명꼴로 비교적 높았고, 반대로 3유형의 경우 거의 대다수(97%)가 묵상 기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선호하는 기도\* (기독교인, %)



\*4점 척도

## 이번호 요약

### 1.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 '전통적/권위적' 압도적!

-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 4가지 변수를 보면, 전통적-현대적 중 '전통적 신앙'이(77%), 권위적-탈권위적에서는 권위적(72%)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초월적-현실적(각각 53%, 47%)과 공동체-개인(각각 54%, 46%)은 비슷한 수준 혹은 큰 차이가 없었다.

### 2. 현대적/탈권위적 신앙 유형, 영적 성장 관심도 떨어져!

- '나는 영적 성장에 관심이 많다'에 관해 1,2,4유형은 80~90%대의 높은 동의율을 보인 반면 3유형(현대&현실&개인&탈권위)은 34%에 그쳐 전체적으로 현대적/탈권위적 유형층에서 영적 성장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 3. 신앙 성장 도움, 3유형은 '출석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미디어/가족' 영향 더 커!

- 신앙 성장 도움 요인으로는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37%)가 가장 많았는데 3유형의 경우는 예배/설교(14%)보다 미디어(35%), 가족(23%) 영향이 높아 주목된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다양한 신앙의 얼굴들 : 개인적 소감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 관련 성경 구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전 12:4~6)

## 목회 적용점

이번 한국 기독교인 유형 연구 조사 결과에서 보면 한국 교회 내 다양한 신앙 유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전통&초월&공동체&권위'로 33%였고, 이와 정반대인 '현대&현실&개인&탈권위'(11%)는 세 번째로 많았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함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는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에 앞서 두 유형 간 특성(p.7)을 비교적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 간, 성도와 목회자 간 의견을 나눌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양성의 차원에서 소통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16개 유형 중 상위 8개를 뺀 나머지 8가지 소수 유형이 전체의 11%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러한 소수 집단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다양한 부류의 지체들이 하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점을 인식하여 성도들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을 하나의 무리가 아닌 개별적으로 쫓아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성도의 생각과 요구, 신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신앙 유형 특성을 반영한 목회적 적용으로는 가령 가나안 성도와 젊은 세대가 비교적 많은 3유형(현대&현실&개인&탈권위)의 경우는 신앙 훈련을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2유형(전통&현실&공동체&권위)의 성도에 대해서는 교회 봉사 업무를 독려하여 교회 소속감 등을 높일 수 있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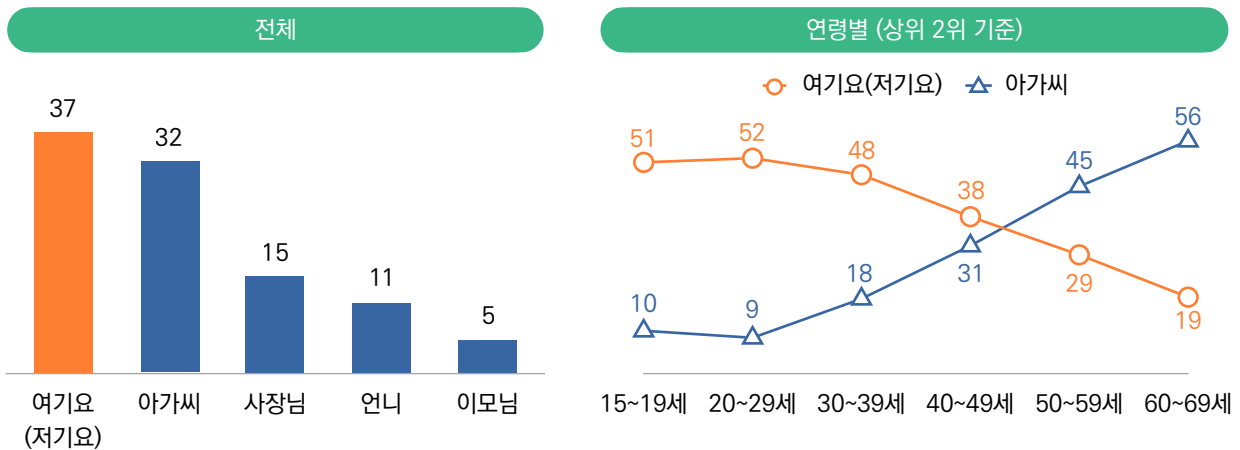
1. 2024년 국어(어휘) 사용 실태
2. 직장 내 사적 질문의 적정선
3. 동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의 1인당 GDP 추이



## [2024년 국어(어휘) 사용 실태] 젊은 여성 판매원 호칭, 저연령층: '여기요', 고연령층: '아가씨'

- 호칭과 일상 표현에 관한 우리국민의 언어(어휘 사용) 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최근 발표(국립국어원)되었는데 55개 문항 중 눈에 띄는 설문 결과를 선별하였다.
- 젊은 여성 판매직원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을 보면 '여기요(저기요)'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이어 '아가씨', '사장님', '언니' 등의 순이었다.
- 특히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높은 연령대일수록 '아가씨'를, 젊은 연령대일수록 '여기요(저기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젊은 여성 판매직원을 직접 부르는 말 (일반국민,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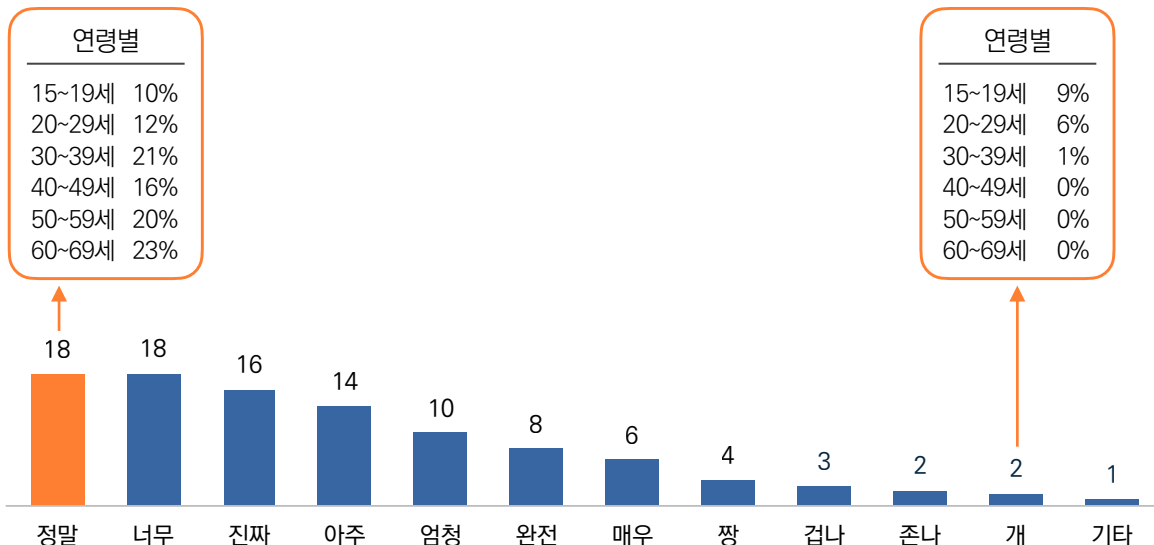


※출처: 국립국어원, 국어 사용 실태 조사(어휘) 결과 보고서, 2025.01.15.(전국 15~69세 남녀 3,000명, 가구방문 개별 면접조사, 2024.07.18.~09.11.)

## 재미있을 때 사용하는 수식어, 20대 이하 '짱', '개' vs 30대 이상 '너무', '정말' 많아!

- 재미있음을 강조하는 수식어를 살펴본 결과, '정말', '너무', '진짜', '아주' 등의 순이었는데 재미있음을 강조하는 말의 사용 양상은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20대 이하에서는 '짱', '겁나', '개' 등이 30대 이상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너무', '정말' 등의 비율이 2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영화가 '재미있음'을 강조하는 말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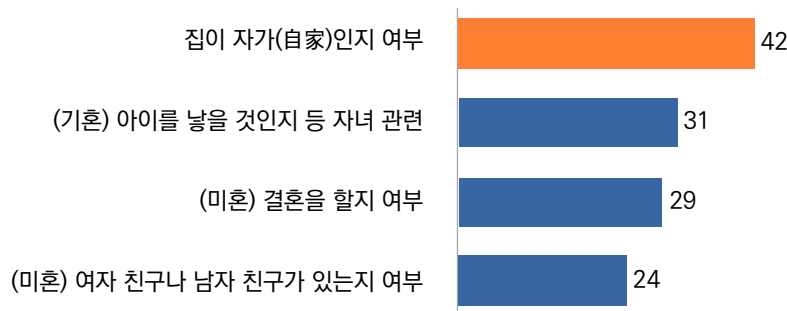
※출처: 국립국어원, 국어 사용 실태 조사(어휘) 결과 보고서, 2025.01.15.(전국 15~69세 남녀 3,000명, 가구방문 개별 면접조사, 2024.07.18.~09.11.)



## [직장 내 사적 질문의 적정선] 회사 동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 1위, '집이 자가(自家)야?!

- 직장 내 사생활 질문의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 직장 내 사적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조선일보)가 최근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
- 회사 동료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질문을 묻은 결과(복수응답), '집이 자가(自家)인지 여부'(42%)를 묻는 질문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와 스트레스가 '집 장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아이를 낳을 것인지 등 자녀 관련'(31%), '결혼을 할지 여부'(29%) 등의 순이었다.

[그림] 회사 동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 (직장인, 복수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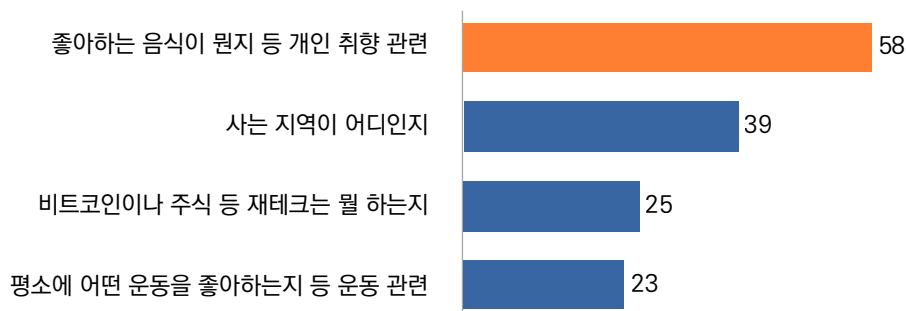


※출처 : 조선일보, "금대리, 아파트 자가야?" 직장인들 이런 질문 들으면 질색, 2025.01.25. (20~50대 직장인 814명, 2025.01.16.-01.17., 톨리언프로)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1/23/ZFF6AVMSOBFT5KWTNTNMGV4ULA/>)

## 반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등 개인 취향에 관한 질문은 O.K!

- '회사 동료에게 물어도 된다는 사적 질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등 개인 취향 관련'(58%)이 란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39%), '비트코인이나 주식 등 재테크는 뭘 하는지'(25%) 등 의 순이었다.

[그림] 회사 동료에게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적 질문 (직장인, 복수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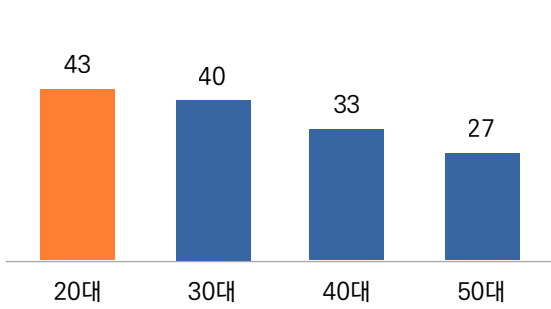


※출처 : 조선일보, "금대리, 아파트 자가야?" 직장인들 이런 질문 들으면 질색, 2025.01.25. (20~50대 직장인 814명, 2025.01.16.-01.17., 톨리언프로)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1/23/ZFF6AVMSOBFT5KWTNTNMGV4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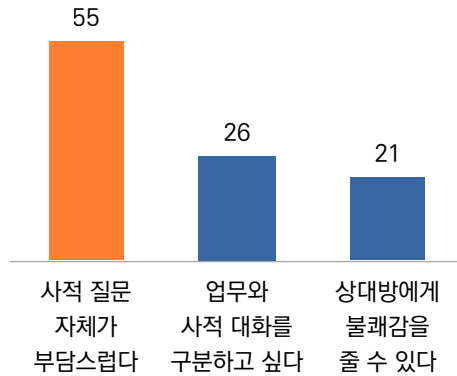
## 20대 직장인이 사적 질문 피하는 이유, ‘부담스러움’, ‘업무와 사적 대화 구분 필요’ 꼽아!

- 이번에는 ‘어떤 자리에서든 사적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질숯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20대로 갈수록 사적 질문을 피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사적 질문을 기피하는 20대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부담스럽다’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림] ‘어떤 자리에서든 사적 질문 하지 않는다’ 그렇다 응답률  
(직장인, 연령별, %)



[그림] 사적 질문을 피하는 이유  
(20대 직장인, 복수응답,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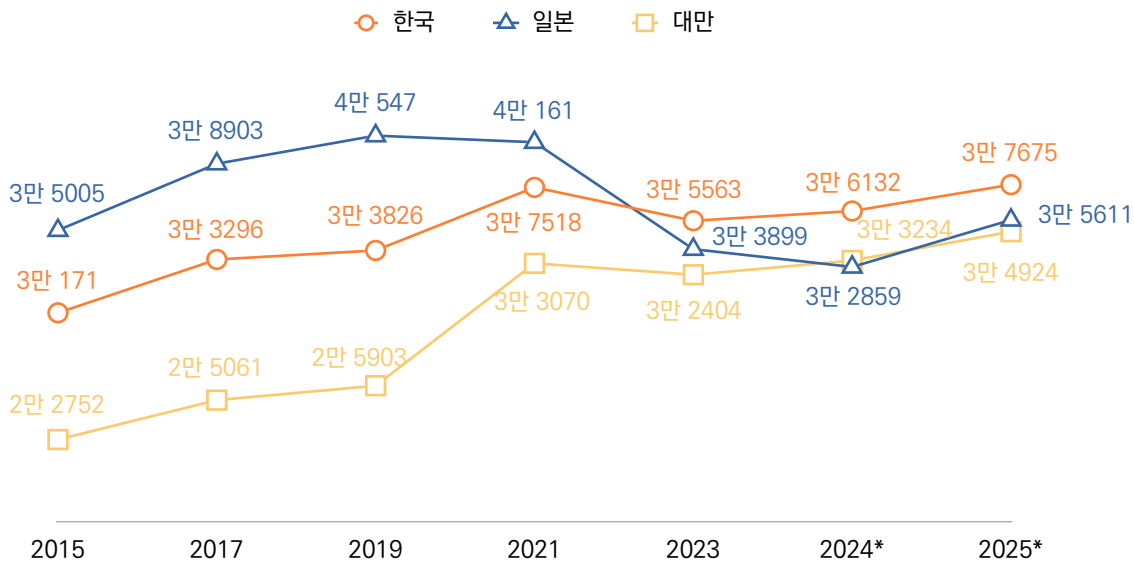
※출처 : 조선일보, "숯대리, 아파트 자가야?" 직장인들 이런 질문 들으면 질색, 2025.01.25. (20~50대 직장인 814명, 2025.01.16.~01.17., 톨리언프로)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1/23/ZFF6AVMSOBF5KWTNTNMGV4ULA/>)



## [동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의 1인당 GDP 추이] 2025년 3개국 1인당 GDP 예상, 한국 > 일본 > 대만!

-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재화, 서비스)을 인구로 나눈 값을 뜻하는 1인당 GDP는 국민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매년 IMF에서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의 1인당 GDP 추이를 살펴본다.
- 지난 2024년 10월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6132달러로 추산했는데 2025년에는 3만 7천 달러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 10년 전인 2015년에는 1인당 GDP가 일본(3만5005달러), 한국(3만171달러), 대만(2만2752달러) 순이었는데 2023년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고, 이어 2024년에는 대만도 일본을 추월하여 주목된다. 다만 2025년에는 일본이 대만을 재역전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한국·일본·대만 1인당 GDP 비교 (달러)



※출처 :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WEO) 데이터베이스 참조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KOR/JPN/TWN>)  
\*2024-2025년은 추산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정치

###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11호 \(2025년 2월 2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인물별 대통령감 인식 등

###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42호 \(2025년 2월 2주\)](#)

- 탄핵에 대한 의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응 평가, 행복감과 사회 신뢰도 등

## 사회 일반

### [응급실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 한해 4만6천명...45%가 '1020'](#)

연합뉴스\_2025.2.13.

### [대한민국 국민, 한해 288만명 다친다 자해·자살 사망률 여전히 OECD 1위](#)

매일경제\_2025.2.11.

###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데... '잠재적 가해자' 낙인 우려](#)

국민일보\_2025.2.13.

### ["1인 가구 '사회적 단절·고립' 악화...빈곤 개선도 더뎠다"](#)

연합뉴스\_2025.2.16.

### [5년 만에... "中 비호감" 42%→72% "日 호감" 10%→31%](#)

중앙일보\_2025.2.15.

### [\[기획\] 우리 국민의 온라인 댓글에 대한 인식은? :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2.12.

## 청년 · 청소년

### [미혼 남녀 37.8% "연애 필요 못 느껴"...경제적 부담도 영향](#)

동아일보\_2025.2.13.

## 노인

### [한국 고령층 "생활 쪼들려도 아파트는 못팔아"](#)

동아일보\_2025.2.13.

### [차 뒤에 '어르신 운전 중' 붙였더니...65%가 도로에서 겪은 일](#)

매일경제\_2025.2.12.

## 경제 · 기업

###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원 돌파...법인세만큼 커졌다](#)

연합뉴스\_2025.2.17.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아버지는 재취업 전쟁·자녀는 구직 포기 ... 거꾸로 간 고용시장](#)

매일경제\_2025.2.10.

## [21년간 임금인상률...정규직 126% vs 비정규직 99%](#)

한겨레\_2025.2.5.

## ["직장 동료의 노출 심한 카톡 프사...누가 좀 알려줘요"](#)

조선일보\_2025.2.13.

## 국제 · 환경

### ["한국, 10년 내 핵무장" 세계 전문가 40%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앙일보\_2025.2.13.

### [이스라엘인 65%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 지지"](#)

중앙일보\_2025.2.13.

### ["노부모 간병위해 일 관두는 직원 없게"... '세계 최대 노인대국' 의 교육지책](#)

매일경제\_2025.2.10.

### ["80대 1년이 체감 4일"...나이를수록 시간 빨리 가는 이유 알았다](#)

중앙일보\_2025.2.16.

## 건강

### [치매 진단 후 생존기간 얼마나 될까](#)

한겨레\_2025.2.14.

### [치매·뇌경색증...노인성 질병 진료비 4년 만에 20% 증가](#)

한겨레\_2025.2.12.

### [커피, 하루 몇 잔 마시면 너무 많은 걸까? 의사의 답변은...](#)

동아일보\_2025.2.14.

## 기독교 · 종교

### [연탄 후원 뚝... 헌혈 급락... 자살률 치솟는데 '탄핵 블랙홀'에 약자 목소리 묻혔다](#)

국민일보\_2025.2.17.

### [지난 미 대선 때 해리스보다 트럼프 더 지지한 복음주의자들](#)

국민일보\_2025.2.12.

## 기획기사 : [甲질 프리를 향하여], 국민일보

[〈상〉 관리집사를 심부름꾼 취급... 교회 내 갑질도 심각](#) \_2025.2.5.

[〈하〉 "기독교 직장인 사랑이 조직에 퍼질 때 갑질도 줄 것"](#) \_2025.2.6.

# 후원

## 후원 교회

경동교회, 곁에있는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금광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벨엘교회, 광주서남교회, 광주양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남송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산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목민교회, 묘동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상당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남제일교회, 수원성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강남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앙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세종선한목자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광교회, 영락교회, 영주제일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울산다운공동체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산교회, 조암제일교회, 조양중앙교회, 주가행교회, 주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참사랑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풍성교회, 포도원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함께하는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촌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아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움, (주)하츠(주)벽산, 하온커넥터(주)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연구소 소식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b>Upward</b>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b>Forward</b>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b>Inward</b> 그리스도의 몸 친교	<b>Outward</b> 예수의 섬김 봉사	<b>Onward</b>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	--------------------------------------	--------------------------------	--------------------------------	-------------------------------------

# 목회데이터연구소

## 제3차 목회데이터포럼, '한국교회 여교역자의 현실'

목회데이터포럼은 한국교회에 중요한 이슈를 연구하여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포럼입니다.

- 1) 주제 : 한국교회 여교역자의 현실
- 2) 일시 :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3)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7)
- 4) 주요 내용

내용	발표자
목회자의 여교역자 인식과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여교역자의 입장에서 본 보고서 합의 평가	김은정 목사 (예장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사무총장)

\*실시간 온라인 중계 예정이며 현장 참석도 가능합니다.

## 제3차 목회데이터포럼

# 한국교회 여교역자의 현실

2025.02.21.(금) 오후 2시~3시 30분  
연동교회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7)



현장 참석 신청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